

한강 열기 여전... ‘소년이 온다’ 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



한강 작가



역시 한강이었다. 올해 문학 출판계는 지난해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효과’의 자리가 지속된 해였다. 한강의 작가적 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으며, 국내 안팎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한강 작가가 당시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언급했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문학의 본질, 의미, 가치 등을 사유하게 했다. 올해 종합 베스트셀러는 광주 5·18의 참상과 아픔을 소설적으로 승화시킨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차지했다. ‘소년이 온다’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특히 ‘12·3 계엄’과 맞물려 ‘광주정신’을 환기하게 했다. 교보문고와 예스24가 1일 발표한 ‘2025년 종합 베스트셀러 트렌드 및 결산’에 따르면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소년이 온다’의 2년 연속 종합 1위는 연간베스트셀러 역사상 5번째다. 이전에 ‘홀로서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시크릿’,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소년이 온다’는 현대사의 상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미학적 관점에서도 독특한 울림을 전하는 소설이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나면 ‘80년 5월’과 국가폭력이 다시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스24에 따르면 ‘소년이 온다’는 80년 5월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 한국적인 서사다. 올해 27주간 종합 10위 내에 머물렀으며 한 해의 절반 이상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랭크가 됐다. 뒤를 이어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성해나의 ‘혼모노’, 양귀자의 ‘모순’ 등도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 내에는 소

2025 도서 판매 트렌드 분석
지난해 노벨상 수상 효과 지속
‘12·3 계엄’으로 광주정신 환기
100위권 내 소설·시·희곡 21권
정치사회 분야 판매 19.1% ↑
AI 일상화로 관련 서적 출간 붐
유시민·성해나·양귀자 도서 인기

설, 시, 희곡 분야 도서가 21권 포함됐으며 한강 작가 작품을 제외하더라도 소설, 시, 희곡 분야 도서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4.0% 신장했다. 이와 맞물려 한국소설과 한국시는 각각 19.5%, 7.3% 판매량이 늘어(한강 작품 제외) 한국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교보문고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성해나의 ‘혼모노’, 양귀자의 ‘모순’ 등도 상위권에 올라 독자들의 인기를 반영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시작된 일련의 급박한 정치 상황은 자연스레 한국정치,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관련 도서들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교보문고 집계에서는 상반기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사회 분야 책 판매가 19.1% 늘었다. 특히 5월에는 93.2%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그 가운데 정치/외교 관련 도서가 53.1% 늘었다. 법학 분야 도서는 34.1%의 신장률을 보여 전공자를 넘어 일반 독자들에게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양상은 예스24 집계에서도 드러났다. 국내외 역동적인 정치 상황이 관련 도서 판매로 이어졌다는 방증이다. ‘사회·정치’ 분야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는데 그 중 가장 급부상한 분야는 ‘헌법서’였다. 지금까지 일반 독자들에게는 소구력이 없었던 ‘헌법’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면서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도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AI의 일상화로 관련 서적 출간이 붐을 이룬 점도 하나의 트렌드로 기록된다. 출판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분야에 AI는 이제 상수가 되다시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스24는 ‘AI·인공지능’ 책들이 무려 2000종 넘게 발간됐다고 집계했다. 챗GPT 등 AI의 영향력 증대와 맞물려 도서 판매와 출간 모두 급증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관련 서적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40.5% 신장했고, 올해 출간된 신간은 지난해 1308종에서 1.8배 증가된 2327종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이선 물리의 ‘듀얼 브레인’이 가장 많이 팔렸다. 교보문고 분석에서도 ‘AI 관련 도서’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68.5% 급증했다. 또한 경제경영, 인문, 자기계발 등 전 분야로 AI 활용서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관계자는 “AI 기술이 대화형 AI와 생성형 AI 모델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디지털 범람 속에서도 손으로 직접 글을 옮기는 필사책도 인기를 끌었다. 예스24에 따르면 필사 도서는 작년 대비 64.7% 판매량이 늘었다.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노트’는 올해도 필사 트렌드를 견인하는 대표작으로 자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청년 예술가 새 앙상블 찾습니다

클래식 음악 단체 ‘아르플래닛’ 3기 멤버 18일까지 공모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클래식 음악 단체 ‘아르플래닛’이 2024년 창단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 예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연 전석 매진, 누적 관객 2800여 명을 기록했고, 15편의 공연을 기획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광주문화재단·광주 북구청 등 공공 지원사업 3건에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예술 생태계 안착에도 성과를 냈다.

“아르플래닛” (대표최혜지)이 2026년 함께할 3기 멤버를 모집한다. 지역 청년 연주자 육성 모델로 자리매김한 단체가 세 번째 멤버십을 꾸리며 새로운 참여자를 찾는 것이다.

모집은 광주·전남 출신 또는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클래식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분야는 피아노·관현악·성악이다. 지원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면접(20일)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3기 멤버는 아르플래닛이 기획하는 다양한 테마 공연 참여 기회를 비롯해 정기 회의를 통한 음악적 교류, 실무 중심의 무대 경험을 얻게 된다.



아르플래닛 단원들의 모습.

〈아르플래닛 제공〉

또한 ‘예술활동증명 지원’, ‘공연 사진·영상 제공’, ‘프로필 구축’, ‘브랜딩·홍보 지원’, ‘정기 레퍼토리 코칭’ 등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네트워크 확장과 장기적인 활동 기반 마련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모집 관련 상세 정보는 아르플래닛 공식 블로그·SNS·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CC ‘숏폼 공모전’ 대상 박서이 씨

민주·인권·평화 주제...어린이·청소년 부문 대상 입수원 외 4명

‘2025 ACC 민주·인권·평화 숏폼 영상 공모전’에서 박서이 씨의 ‘기억한다는 건, 살아남는 자의 용기입니다’가 청년·일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부문 대상은 ‘민주화 운동, 당신은?’ (입수원·김예슬·이소원·송예린·이도영)이 차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은 최근 전당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5·7월 펼쳐진 공모전은 일반영상과 인공지능(AI) 활용영상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민주·인권·평화 메시지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박서이 씨의 작품은 소년의 시선을 매개로 5·18 민주화운동을 재현, 오늘의 관점에서 그날의 진실을 사유하고 계승하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어린이·청소년 부문 수상작은 인터뷰를 매개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억의 중요성을 환기해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일반 영상부문 ‘ACC, 회복으로 미래를 그리다(배유미)’와 ‘인권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손예린, 김이산, 남다나, 전예원, 김이도)’이, 인공지능 활용영상 부문은 ‘우리가 이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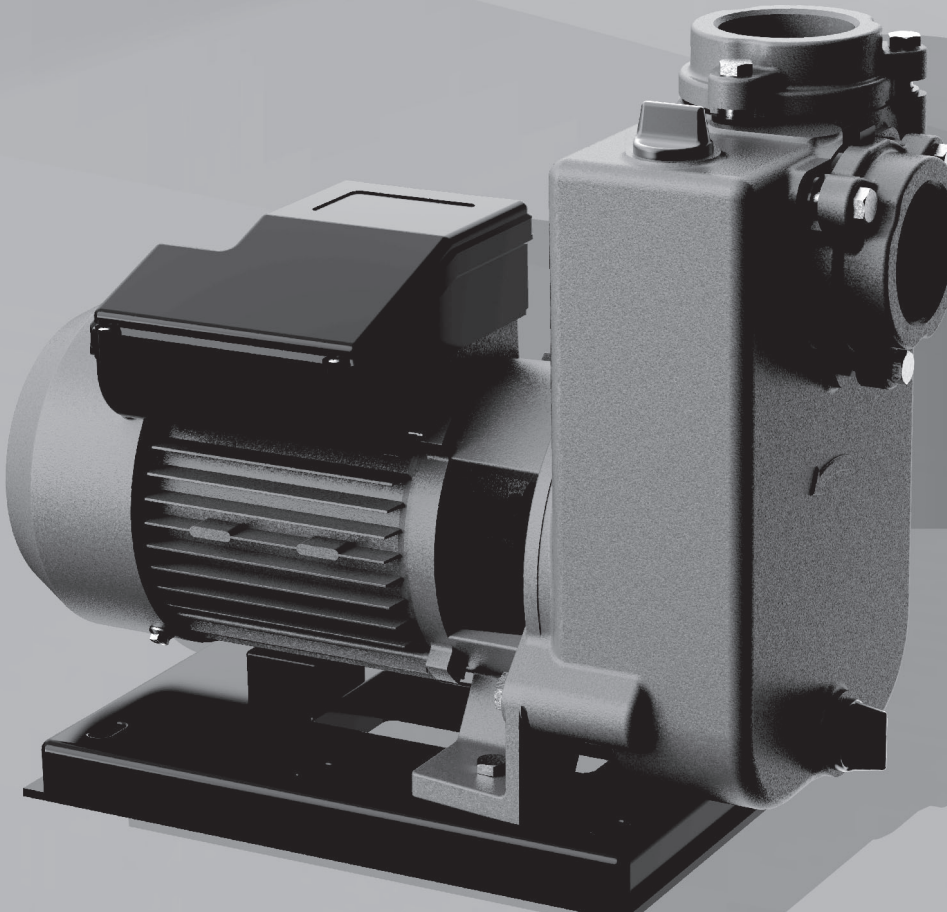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5월의 정신(정효상, 김주선, 임예찬, 김예주, 김지민)’과 ‘아이의 궁금증(박서운)’이 차지했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공모전은 민주·인권·평화의 보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향후에도 의미있는 콘텐츠를 매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상작은 ACC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